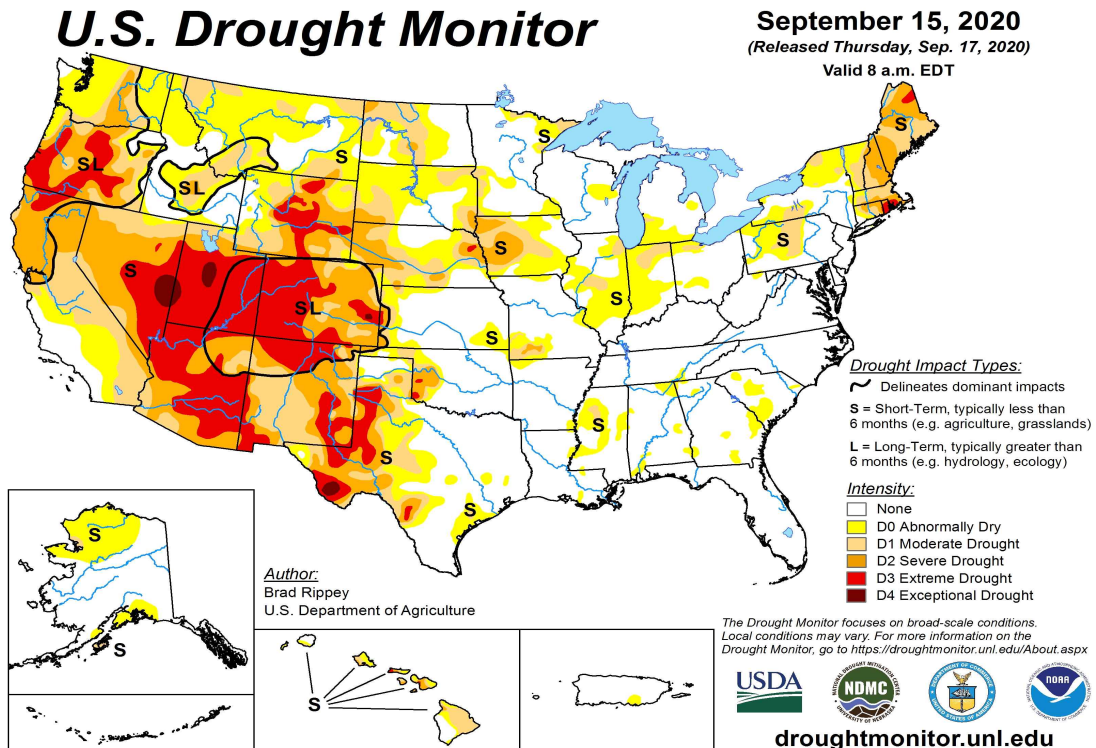


9월 22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7, No. 38)

□ 미국 기후 현황(9/13~9/19)

2등급 허리케인 샬리가 9월 16일 4시 45분경 (중부여름시간) 앨라배마 주 걸프 쇼어스 근처에 시속 105 마일 풍속의 지속적 바람으로 상륙했다. 앨라배마 남부와 플로리다 서부를 가로질러 내린 폭우가 기록적인 큰 홍수를 촉발시켜서 바람으로 인한 피해와 정전이 흔하게 일어났다. 남동부 내륙으로 들어온 이후 샬리는 빠르게 약해졌지만 계속 폭우를 내리면서 버지니아 남부까지 먼 북쪽으로 확장되었다. 앨라배마 남부와 플로리다 서부를 제외하고 샬리가 미친 전반적인 영향은 개화된 면화에 대한 잠재적인 우려를 빼면 비교적 미미했다. 텍사스 남부에 지역적으로 폭우가 내렸고 태평양 북서부에서는 주 후반에 소나기가 발달하기는 했지만 미국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뒤덮었다.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건조한 날씨가 여름 작물의 성숙과 수확을 촉진했다. 겨울 밀 지역에서는 생산자들이 빠른 속도로 파종했다. 그러나 미국 서부의 많은 지역에서 가뭄이 고착되어 있고 산불이 넓은 지역에서 대기의 질을 저하시켰으며 서부의 여러 지역 사회를 계속 위협했다. 그레이트 베이슨과 인터마운틴 웨스트 지역의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5~10° F 높았다. 한편, 서늘한 날씨가 전주부터 동쪽으로 이동하여 주로 중서부와 북동부에 영향을 미쳤다. 중서부에서 대서양 주들의 중부와 북부까지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5~10° F 낮았으나 재배기 말에 나타나는 결빙은 주로 1차 옥수수 및 대두 생산 지역의 북쪽 지역으로 제한되었다.



#### □ 농업 현황 요약 (9/14~9/20)

대부분의 국가들이 평년보다 여전히 건조했지만 허리케인 셀리는 남동부와 대서양 중부에 많은 양의 비를 가져왔다. 엘라베마, 플로리다 및 조지아 일부에 강우량이 총 6인치 이상인 비가 내렸다. 엘라베마의 멕시코 만과 플로리다 팬핸들 근처의 지역들에서는 10인치 이상의 강우를 기록했다. 나라의 서부 대부분이 평년 이상의 기온을 보고했다. 대조적으로 오대호, 대서양 중부 및 북동부 대부분이 평년보다 6° F 이상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 □ 세계 기후 현황(9/13~9/19)

■ 유럽: 유럽 남동부와 남서부에 한 쌍의 열대 교란이 상륙했으나, 대륙의 나머지 대부분에는 건조한 날씨가 만연했다. 주 중간에는 이집트 해안에서 보기 힘든 지중해 허리케인(“메디케인”이라고도 함)이 형성되어 북동쪽으로 그리스를 향해 표류했다. 메디케인 이오나스라는 이름이 붙은 그 폭풍은 9월 17일 현재 그리스 서부에 접근하여 18일 상륙했고 최대 지속 풍속은 65 노트로 추정되었다. 그 폭풍은 그리스의 서부 섬들 앞에서 멈춰서 폭우, 파괴적인 바람 및 돌발적인 홍수를 일으켰다; 공식 보도된 절정의 강우량은 142 mm였으나 실제 강우량은 그리스의 험준한 산악 지형의 바람이 향하는 경사면에서 훨씬 더 높았던 것 같았다. 그리스에서 면화는 곧 수확이 시작되는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비가 가장 심했던 곳, 특히 테살리아에서는 폭풍이 큰 영향을 끼쳤고 작물에 손실을 초래했을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폭풍인 아열대성 폭풍 알파가 주 후반에 이베리아 반도 바로 서쪽에서 형성되어 얼마 후에 (또 이오나스와 같은 날인 9월 18일에) 포르투갈 북부에 최대 지속 풍속 45 노트로 상륙했다. 포르투갈에 최초로 상륙한 폭풍으로 보고된 알파는 가장 동쪽에서 형성된 대서양 열대폭풍으로 기록되었다. 알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수분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총 강우량을 증가시켰지만 (10~50mm, 지역적으로 더 많이) 크기가 아주 작아서 이 폭풍의 영향은 미미했다. 대조적으로 프랑스 서부, 잉글랜드 북부 및 노르웨이에 내린 중간 내지 심한 소나기 (10~5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를 제외하면 대륙의 나머지는 건조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의 겨울 밀과 유채의 주요 지역에 가뭄이 흔들리지 않게 지속되었다; 대서양 연안 중부에서 시작해서 벨기에 방향으로 북동쪽으로 내린 90일 총강우량은 평년의 25~50%에 불과했다. 더욱이, 프랑스는 여름 같은 열기 (33~36° C)가 증발산율과 토양 수분 손실을 악화시켰으며 일주일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최대 8° C 높았다. 다른 곳에서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겨울 밀, 유채 및 보리의 파종은 물론이고 여름 작물의 수확이 용이해졌다.



■ 구소련(서부): 이 지역의 많은 곳들이 심화되고 있는 가뭄 영향을 계속 받고 있어서 2년 연속 겨울 밀의 활착 전망을 낮추었다. 감시 기간 동안 눈에 띄는 비의 대부분이 러시아의 북부 지역에만 국한되었으며 일부 가벼운 소나기 (1~10 mm)가 우크라이나 북부에 쏟아졌다. 7월 15일 이후로 주요 겨울 밀 오블라스트의 남부는 물론이고 여름 작물 지역의 북부에서 우크라이나의 지역 평균 강우량은 평년의 30% 이하로 집계되었다. 여름 작물 수확량은 대체로 정해졌지만 북부는 종실 비대가 늦게 되는 옥수수, 콩 및 해바라기가 7월 중순에 시작해서 멈추지 않는 가뭄으로 인해 수확량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겨울 밀, 유채 및 보리의 활착에 필요한 토양 수분 공급은 2년 연속 아주 부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는 겨울 밀의 파종 및 활착 조건이 악화되었다. 8월 15일부터 남부 지구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르는)를 가로질러 내린 총강우량은 크라스노다르에서는 평년의 45%, 로스토프에서는 5%, 그리고 볼고그라드에서는 20%였다. 전 지역에서 계절적으로 더 추운 날씨가 겨울 작물을 휴면으로 이끌어가기 이전에 수분이 속히 필요할 것이다.

■ 동아시아: 계절을 벗어난 습한 날씨가 중국의 많은 곳에서 계속되어 일부 미숙 작물에게 도움이 되었다. 북동부에서는 10~50 mm의 비가 미숙한 옥수수와 대두에게는 도움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농작물들에게 도움이 되기에는 계절적으로 너무 늦었을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양쯔 계곡 남부 구역에 좁고 길게 내린 폭우 (50~200 mm)가 미성숙 늦작물 벼에게는 좋은 수분 공급을 유지했지만 다른 여름 작물들의 성숙과 수확은 늦추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화북 평원에서 한반도까지 건조한 날씨가 확대되면서 작물의 성숙을 촉진했다.

■ 호주: 서호주에서 국지적으로 내린 소나기 (지역적으로 5mm 가량)가 생식기 겨울 곡류와 유지 작물들에게 추가 수분을 거의 공급하지 않았다. 서부 지역의 작물 상태는 여전히 양호했지만 수확량 잠재력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비가 필요하다. 먼 동쪽으로 남호주, 빅토리아 및 뉴 사우스 웨일즈의 최남단에 광범위하게 내린 소나기 (5~25 mm)가 생식기 겨울 곡류와 유지 작물에게 유익했고 작물 전망을 양호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대조적으로 뉴 사우스 웨일즈의 나머지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증발 손실을 증가시켰지만 맑은 하늘과 대체로 적당한 토양 수분이 밀, 보리 및 캐놀라의 발달을 촉진했다. 호주 동부의 다른 곳에서는 퀸즐랜드 남부에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생식 및 종실비대 중인 밀과 기타 겨울 작물들에게 스트레스를 가하고 있었다. 겨울 작물의 발달을 촉진하고 여름 작물 파종에 앞서서 포도를 적시는데 도움을 주려면 더 많은 비가 필요하다. 남부와 동부에서 평년보다 2~3° C 높은 평균 기온이 작물의 발달을 가속화했다. 서호주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 수준에 가까웠다.

■ 아르헨티나: 계절적 온난화가 겨울 곡류의 수분 수요를 증가시킴에 따라 아르헨티나 중부 및 북서부 전역에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다.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북서쪽으로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전체로 뻗어 있는 지역의 대부분이 완전히 건조했으며, 평년에 가깝거나 평년보다 높은 기온 때문에 서부 생산 지역의 가뭄 상태가 악화되었다; 코르도바는 여전히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 가운데 하나로서 낮 최고 기온이 섭씨 낮은 30도대에 도달했다. 일반적인 온난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더 서늘한 남부 농업 지역에서 결빙(밤 최저 기온이 -2에서 0° C)이 겨울 곡류의 발달을 제한했는데, 코르도바 남부에서 추위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긴 했지만 취약한 밀에 추가적인 지역 동결 피해를 입혔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곳에서는 소나기 (5~25 mm, 지역적으로 40 mm 초과)가 북동부 전역과 서쪽으로 산타페 북부, 차코 및 포모사까지 가볍거나 적당히 산발적으로 내렸다. 북동부에 내린 비가 겨울 곡류의 발달에 유리했고 면화와 기타 여름 작물의 파종에 필요한 수분 보유량을 상승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9월 17일 현재 해바라기는 23% 파종되어 작년 속도보다 12 포인트 뒤쳐져 있었고; 옥수수는 작년의 6% 대비 10% 파종되었는데 이 초기 야외 작업의 대부분은 엔트레 리오스 (54%)와 산타페 (39%)에서 일어났다.

■ 브라질: 건조한 날씨가 브라질의 많은 곳을 지배하면서 밀에게 필요한 수분을 줄였고 대두의 이른 파종 기회도 제한하였다. 소나기도 먼 남쪽 (파라나 남부에서 리오 그란데 도 술 전역으로까지)과 북동부 해안을 따라 있는 지역들에만 국한되었다. 수분량이 더 많아져서 영양기 및 생식기 밀이 혜택을 입었지만 주요 생산 지역에서 만숙 밀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한 수분은 여전히 부족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9월 14일 현재 밀은 23% 수확되었지만 나머지의 40%는 여전히 영양기에서 종실비대기 중에 있었다. 대조적으로 9월 17일까지 리오 그란데 도 술의 밀의 3% 만이 성숙기에 이르렀다. 주요 재배기 옥수수는 파라나와 리오 그란데 도 술 양쪽에서 파종이 진행되었다. 여름의 더위 (낮 최고 기온이 섭씨 낮은 및 중간 30도대에 도달)가 파라나의 수분 수요를 더욱 증가시켰다. 한편, 중서부와 북동부 내륙 지역 (마토 그로소와 마토 그로소 도 술에서 동쪽으로 토칸티스 전체까지)의 대두 재배지에서는 건조와 열기 (낮 최고 기온이 40° C에 도달)가 계속되었으며 농민들은 파종을 시작하기 위해서 계절 강우가 개시되기를 기다렸다.